

전주서 ‘역옹패설’ 기탁…문화유산에 지역이 따로 있나요



경북 안동에 위치…국보 ‘징비록’·보물 1844점 등 총 44만 여점 보관

개인·문중서 소장하는 고서·고문서·서화류 등 기탁 받아 과학적 관리

전주 경주이씨 문중 이세현의 ‘익재난고’ 등 184점…지역의 벽 허물어

지난해 10월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됐다. 유교책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나무 판에 새긴 목판으로 305개 문종, 서원 등에서 진흥원에 기탁한 718종 6만 4226장으로 구성돼 있다.

유교책판은 국가가 아닌 각 지역의 지식인 집단들이 시기를 달리해 만들었다. 수록 내용도 문학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궁구했다는 점에서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다. 유교책판은 후대가 선대 학문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단지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현판 550점이 아·태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진흥원은 2016년 8월 말 현재 국보 제132호 ‘징비록’을 비롯해, 보물 20종 1844점, 시도유형문화재 1918점, 문화재자료 216점, 등록문화재 691점 등 총 44만 여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소장하고 있다.

진흥원이 경북 안동에 위치하다 보니 영남 지역

기층이 중심이 돼 왔던 상황에서 최근 호남 지역 자료 기층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진흥원은 경북 도출연기관이지만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로부터 지원받아 활동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 수집·보존기관이다.

지금까지 호남 지역 국학자료가 진흥원에 기탁된 사례가 흔치 않았다는 점에서 최근 전주시 완산구 경주 이씨 청호공파 문중(소장자·이종만)의 기탁 소식은 의미가 있다. 청호공파 문중은 고려말 학자 익재 이세현(李齊賢·1287~1367)의 ‘익재난고(益齋亂藁)’와 ‘역옹패설(櫟翁駭說)’ 책판 184장을 기탁했다. 이 책판들 역시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익재난고’는 이세현의 아들 장로(彰路)와 손자 보림(寶林)이 1363년(공민왕 12)에 간행했다. 당시 산실된 원고가 많아 책이름을 ‘난고’라고 했다. ‘역옹패설’에서 역옹은 이세현의 호, 패설은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록한 일종의 민담소설이다. 이 두 책은 모두 이세현의 호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합쳐서 ‘익재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저자 이세현의 초명은 지공(之公)이고, 자는 중사(仲思)이며, 호는 익재(益齋)·역옹(櫟翁)이다. 이세현은 1301년(충렬왕 27) 성균시(成均試)에서 1등으로 합격하고 과거에도 합격했다. 그는 1324년 밀직사(密直使)를 거쳐 1325년 첨의평리(僉議評理)·정당문학(政堂文學)에 전임됨으로써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1356년(공민왕 5) 기철(奇徹) 등을 제거하는 반원운동이 일어나자,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돼 사태의 수습에 나섰다 다음해에 치사(致仕)했다.

진흥원에 기탁하는 자료의 소유권은 원소장자가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또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연 1회 개최되는 ‘기탁자의 날’에는 신규 기탁자 전원에게 국학자료 보관증서·감사패·목록집을 증정한다.

기탁 자료는 최첨단 방범시설과 24시간 환온·환습기, 하론개스 방화시스템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된다. 특히 수집된 목판의 과학적인 보존을 위해 목관 전용 수장시설인 장판각도 운영하고 있다.

또 기탁된 자료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보급과 활용에 이용되며 매년 국제·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년에 3~4회 기탁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회도 연다.

진흥원은 민간으로부터 기탁받은 소장자료 가운데 주요 자료를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민간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 관리를 위임받은 진흥원은 자료 가치 발굴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나아가 선조들의 위업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국익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www.koreastudy.or.kr. 문의 054-851-076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익재 이세현 영정



‘익재난고’ 책판



‘익재난고’ 책판 인쇄본

■ 한국국학진흥원

1996년 설립…문화부·경북도 운영

전국 최대 기록자료 소장 기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지난 1996년 문을 연 한국국학진흥원은 개인이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료(고서·고문서·목판·서화류, 기타 전통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도난이나 훼손·멸실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재단법인으로 운영 주체는 경북도이며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안동시 옛 군청 청사에서 직원 8명, 예산 7억원으로 문을 연 진흥원은 설립 20년을 맞은 올해 직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3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민간에 소장된 국학 자료를 기탁받아 연구·전시하고 DB구축·자료집 등을 발간하는 일이다. 또 번역사업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소장 기탁운동’을 통해 2001년 첫 기층이 시작됐으며 그 동안 전국 각지의 문중과 서원 등에서 목판과 고서를 비롯한 민간 소장 기록유산 약 44만 여점을 기탁 받아 국내 최대 기록자료 소장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졌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손자·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무릎교육의 전통을 되살려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조순세대간 문화를 소통시키는 게 사업의 취지다. 지금까지 2000여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전국 6000여곳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민간 소장 기록유산 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며 올해 신설된 ‘국학정보센터’를 통해 디지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 전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그린맨 파워
MR-10 만능레당 복합기능성
소팔메토·아연·아연